

# 감독·단장 없고 대표 사의...광주 FC '시련의 계절'

광주시 특정감사, 기영욱 전 단장 재직 당시 횡령 혐의 포착  
정원주 대표 이사 사의 표명...감독 선임 절차도 중단  
구단, 경영난 가중 우려...선수단, 21일 소집 시즌 준비 돌입

최고의 성적을 낸 광주FC의 겨울이 춥다. 올 시즌 K리그1으로 돌아온 광주는 창단 첫 파 이널A를 이루면서 큰 박수를 받았다. 특유의 팀 위크를 발휘하며 광주의 저력을 발휘했지만, 내년 시즌은 안갯속에 가려져 있다. 시즌 종료를 앞두고 터져 나온 'FC 서울발 소식'이 시작점이 됐다. 논란과 진통 속에 광주의 '우승 감독' 박진섭 감독이 서울로 떠나는 것으로

일단락이 됐지만 더 큰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 새 감독 물색이 최우선 과제가 됐지만, 감독 선임 작업이 전면 중단됐다. 광주시의 특정감사 결과 기영욱 전 단장의 재직 당시 횡령 혐의가 드러나면서 다시 한번 광주가 뜨거운 아픔이 됐다. 8일에는 감사결과에 책임을 통감하고 정원주 대표이사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구단주를 빼고 주

요 자리가 공석이 될 위기에 처했다. 광주는 지난 시즌이 끝나고 기 단장이 물러난 뒤, 단장 자리를 채우지 못했다. 김준영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이 '임시 단장' 역할을 하고 있다. 시즌 준비를 위해 바쁘게 움직여야 할 시기에 광주 실무진은 어찌저찌 저러지도 못하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K리그1 최하위 예산으로 어렵게 팀을 꾸려왔던 광주는 이번 사태들이 내년 시즌 운영에 타격을 줄까 노심초사 하고 있다. 이미 '돈싸움'에서 밀리며 주축 선수 중 일부와는 작별을 앞두고 있다. 내년 시즌을 위한 스케줄은 정해놓기는 했다. 오는 21일 재소집되는 선수들은 1월 8일까지 광주에서 2021시즌을 위한 워밍업에 나선다.

이어 남해·여수에서 동계훈련을 진행한 뒤 광주에서 마지막 '육석가리기'를 진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훈련 일정을 빼고는 정해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 감독 선임을 위해서는 대표이사의 거취가 먼저 정해져야 하는 상황이다. 정 대표이사의 사직 여부는 이사회를 거쳐 구단주인 이용섭 광주시장의 결정하게 된다. 불행 중 다행은 광주를 향한 지도자의 관심이 뜨겁다는 것이다. 광주는 선수들에게 '기회의 땅'이다. 박기동(경남), 이승기(전북), 나상호(성남)에 이어 올 시즌 임원상이 광주에서 태극마크를 달며 비상했다. 정조국·이종민은 광주에서 '제2의 전성기'를

보냈고, 광주에서 기회를 얻어 성공사례를 만든 이들이 많다. 물론 감독들에게도 광주는 매력적인 팀이다. 광주는 외압 없이 자신만의 색을 시험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도화지' 같은 팀이다. 광주에서 수석코치로 시작해 기적의 승격을 이끌며 최고의 지도자로 도약했다. 박진섭 감독도 광주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서울 입성에 성공했다. 아마 지도자부터 스타 출신까지 많은 이들이 광주에 이력서를 내고 사령탑 자리를 노리고 있다. 광주가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새로운 시작의 봄을 맞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KIA 최형우, 조아제약 최고 타자상

대상 NC 양의지·신인상 KT 소형준

KIA 최형우가 최고타자로 시상대에 섰다. 최형우는 8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0 조아제약 프로야구 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타자상을 받았다. 최형우는 140경기에서 타율 0.354, 28홈런, 115타점을 기록하며 '베테랑의 품격'을 보여줬다. 특히 시즌 마지막주 뜨거운 경쟁 속에 타격왕 타이틀을 차지했다. 이날 최고의 별은 NC 양의지였다. 양의지는 올 시즌 NC의 사상 첫 통합 우승을 이끈 주역이었다. 130경기 출전해 타율 0.328, 33홈런, 124타점을 기록했고, 안정적인 리드로 NC 투수진을 이끌며 도루저지율(42.9%) 1위도 기록했다. 대상 수상자인 양의지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1000만원이 수여됐다. 신인상은 KT 소형준의 차지가 됐다. 올 시즌 26경기에 나온 소형준은 13승 6패 평균자책점 3.86을 기록했다. 감독상은 부임 2년 만에 NC의 우승을 지휘한 이동욱 감독에게 돌아갔다. 올 시즌 1군 감독대행으로 역대 가장 긴 144경기를 소화한 최원호 한화 퓨처스팀 감독은 지도자상을 받았다. 이 외에 NC 구장모가 최고 투수상, 키움 조상우가 최고구원투수상 주인공이 됐다. 기량발전상은 두산 투수 최원준과 삼성 투수 최재흥이 차지했다. 집중력이 뛰어난 선수에게 주어지는 조아바이톤상은 두산 투수 유희관과 키움 외야수 이정후에게 돌아갔다. 팀에 활력을 불어넣은 해포스상의 주인공은 LG 신인 투수 이민호가 수상했다. 올 시즌을 끝으로 그라운드를 떠나는 LG 박용택과 한화 김태균은 각각 기록상과 공로상을 받았다. KT 중견수 배정대가 수비상, SK 투수 박종훈이 올해 신설된 선행조아상을 받았다. 강릉고 좌완 김진욱(롯데 입단)이 아마 최고 선수가 됐고, 45년 만의 강릉고 전국대회 우승을 이끈 최재호 감독이 아마 지도자상을 받았다. 허구연 야구발전장학회 모범상 주인공으로는 폐교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야구 열풍을 만든 거제 외포 중학교가 선정됐다. KBO(한국야구위원회)가 스포라이브 모범방역상, KBO의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수립에 기여한 전병을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노바이러스 공로상을 받았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날아서 '터치다운' 버팔로 빌스의 도슨 녹스(88)가 8일 미국 애리조나주 글렌데일 스테이트 팜 경기장에서 열린 NFL 13라운드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스와 경기에서 터치다운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성재

## 임성재 "유종의 미"

10일부터 유러피언 투어 왕중왕전 출전

임성재(22)가 유러피언 프로골프투어 2020시즌 최종전인 DP 월드 투어 챔피언십(총상금 800만 달러)에 출전한다. DP 월드투어 챔피언십은 10일부터 나흘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주메이라 골프 에스테이트(파72·7675야드)에서 열리는 유러피언투어의 올해 마지막 대회다. 이 대회는 2020시즌 유러피언투어의 포인트 제도인 레이스 투 두바이 부문 상위 60명만 출전할 수 있다. 임성재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를 주 무대로 삼기 때문에 유러피언투어 포인트를 쌓을 기회가 많지 않았지만 마스터스, US오픈, PGA 챔피언십 등 세 차례 메이저 대회와 두 번의 월드골프챔피언십(WGC) 대회에서 따낸 포인트만으로 15위에 올라 이 대회 출전 자격을 갖췄다. 이번 대회 우승 상금은 300만 달러(약 32억5000만원)나 된다. 이는 올해 메이저 대회로 열린 US오픈의 225만 달러, 마스터스 207만 달러, PGA 챔피언십 198만 달러보다 많은 액수다. 임성재가 만일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고 다른 선수들의 결과에 따라 레이스 투 두바이 부문 1위까지 차지하면 보너스 50만 달러도 받을 수 있다. 현재 레이스 투 두바이 부문 1위는 2427점의 패트릭 리드(미국)다. 2위는 1967점의 토미 플리트우드(잉글랜드), 임성재는 1122점으로 15위에 올라 있다. 임성재는 2021년 1월 7일 미국 하와이에서 개막하는 PGA 투어 센트리 챔피언십 토너먼트로 2021년을 시작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이정은 "왕관 사수"

10일부터 LPGA US오픈...한국 27명 출전

이정은(24)이 자신의 꿈을 이룬 무대 US여자오픈에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출격한다. 여자골프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인 US여자오픈(총상금 550만달러)은 10일부터 나흘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챔피언스 골프클럽(파71)에서 열린다. 1946년 시작해 올해 75회째를 맞는 이 대회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하지만 올해는 역대 처음으로 12월에 대회가 열린다. 원래는 6월 4~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때문에 12월로 연기됐다. 또 올해 대회는 낮이 짧은 겨울에 열리는 점을 고려해 역대 최초로 2개 코스에서 나누어 열린다. 지난해 6월 열린 대회에서는 이정은이 US여자오픈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LPGA 투어 데뷔 첫 우승을 이뤘다. 이 우승을 발판으로 이정은은 2019년 LPGA 투어 신인상도 거머쥐었다. 이정은은 US여자오픈 우승 이후에는 우승컵을 들어올리지 못했다. 코로나19때문에 올해 주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뛰던 이정은은 지난달 LPGA 투어로 복귀해 2개 대회에 출전해 감각을 조절했다. 지난주 불런티어스 오브 아메리카(VOA) 클래식에서는 공동 16위를 차지했다. 이정은이 올해 US여자오픈 정상에 오른다면 이 대회 역대 8번째 타이틀 방어에 성공하는 선수가 된다. US여자오픈은 전통적으로 한국 선수들이 강세를 보인 대회다.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한국 국적 선수는 총 27명으로, 미국 선수들(41명)을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임희정, 안나린, 김아림, 이승연 등 KLPGA 투어에서 맹활약하는 선수들이 US여자오픈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연합뉴스



이정은